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낭만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대학 생활 속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공부, 취업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좋지만,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낭만이라는 단어의 정의이다. 누구에게는 치열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달콤했던 겨울이 지났다. 벚꽃은 저물었지만, 여전히 가벼운 복장으로 나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와 불쾌하지 않은 바람들에 머리를 흔들린다. 날씨가 좋을 때는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운 여름이 오기 전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1980년대 학교생활을 했던 교수와 코로나 이전 2000년대에 학교생활을 했던 동문과 22학번 학우까지. 8면에서는 그들의 ‘썰’을 들고 와 봤다.

권규태 기자 kgt120299@gmail.com

박호근 교수 “대학생의 삶에 필요한 낭만”



학생들과 야외수업을 하고 있는 박호근 교수

지금 우리로서는 영상과 창작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1980년대에 그러지는 복고풍과 잔디밭, 통기타 등의 이미지가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대학생활은 어땠을까? 기자는 1980년도에 대학생활을 했던 박호근 교수를 직접 만났다. 특별히 박 교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박 교수는 매 학기 수업 시간마다 한 번은 꼭 야외 수업을 진행한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낭만 때문이다.

박 교수는 “대학생이라면 낭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애기하지만 공부가 전부야 아니다. 학생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필요가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학교가 금주·금연 캠퍼스로 지정되어 조금 제한적이다. 하지만 대학 시절에 친구들하고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술도 한잔할 수 있고, 그러다 술에 취해서 수업도 땡땡이치고, 그러다가 가끔 F도 맞고 심하면 학사 경고도 당하는 거다.”라며 본인의 대학생활을 회상했다. 이어 “그때 낭만에 취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학사 경고 받을 만큼 지치지 사느냐?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노는 것도 필요한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생 시절의 경험들이 사회생활에 동력이 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학점에 얽매어 ‘집->학교->도서관->집->학교->도서관’ 이렇게 뱅뱅 돈다.”라며 대학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매 학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야외수업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전을 벤치마킹 한 천마응원단 지도 교수 시절의 목표를 회상하며 답변했다. “천마응원단을 키워서 학교 내의 행사에서 공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교류전으로 고연전(연구전)을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체대도 다른 대학과 체육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 “예를 들면 서울교대도 국립대니까 행사하면서 교류도 하고, 또 거기서 우연치 않게 또 한국체대 학생과 서울교대 학생하고 인연도 맺어지고 그런 즐거움이 있

으면 좋잖아요?”라 답하며 멧쩍은 웃음을 자아냈다.

이제 교수 박호근이 아닌 대학생 박호근을 만나보자. 영화로만 보던 1980년대의 대학생활은 어땠을까? 박호근 교수는 술과 함께한 대학생활을 털어놓았다. 박호근 교수는 “내가 기억나는 대학생 때 낭만은 학교에서 알게 된 선배들과하고 주로 교정 잔디밭이나 근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순간이다. 강의실에서 수업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머릿속에 남지도 않는다. 술자리에서 내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강의실보다는 대학생활 속에서 배운 점들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박 교수는 “전두환 씨가 제가 1,2학년 때인 86년, 87년도에 대통령을 했다. 나쁜 사람이 대통령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학생운동을 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당시의 시국을 설명했다. 이어 “나는그 당시 교수님들이 ‘내가 너희 마음 아픈 심정을 안다. 근대 내가 교수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도 응원한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교수님들 진짜 존경했을 것이다. 근대 그분들은 우리 대학생들이 피 흘리고 교도소 끌려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데모할 때,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다.”라며 당시 느꼈던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대학교수가 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적어도 한 학기 한 번씩 학생들과 잔디밭에 앉아서 인생을 논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야외수업의 오랜 연구를 밝혔다.

끝으로 박 교수는 “대학 수업이 널널한 이유가 뭘까? 남는 시간에 놀라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표했다. 또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은 선배도 있고 존경할 만한 후배도 있고 나랑 같은 동갑내기 친구인데도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 반면, 인간도 아닌 것 같은 선배배, 동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는 놀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남겼다.



2008년 동기들과 속초로 여행을 간 김덕호 동문

2~3년 전 유튜브 피식대학에서 ‘05학번 이즈백’이라는 시리즈로 큰 인기를 끌었다. 05학번은 아니지만 07학번이면 어떨까? 김덕호 동문의 이야기를 통해 2000년대의 대학생활을 들여다보았다.

“대학 생활 내내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기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깊게 남는 것 같다.”라며 김덕호 동문은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 동기들은 리듬체조, 댄스스포츠, 수상스키, 스노보드, 에어로빅, 윈드서핑 등 실적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오거나 일반 입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들 개성이 강하고 유별났다.”라며 당시 유쾌한 동기들에 대해서 회상했다. 김덕호 동문이 속한 레저스포츠학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과 조금 달랐다. 김 동문은 “재학 당시 저희 전공은 야간으로 개설된 학과여서 저녁 6시부터 수업을 했다.”라며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수업 시간대와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재밌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밌는 상황이 있었나는 질문에는 “수업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대라 동기들과 저녁을 미리 먹다가 소주를 갑자기 먹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자체 휴강을 했던 기억도 있다.”라며 대학생 시절 즐겼던 일탈을

소개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는 존재했던 선배들의 집합이 끝나고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려 올림픽공원, 성내천, 둔촌동 등 학교 근처에서 밤새워 술을 먹고 해가 뜰 때 귀가했던 기억도 난다.”라며 추억을 되돌아 보았다. “해가 뜰 때면 꼭 학교 정문의 ‘한국체육대학교’ 글씨 앞에서 해 뜰 때까지 술 마셨다는 인증사진을 찍고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렇게 밤을 새워도 너무 좋았던 점은 수업이 저녁에 시작했기 때문에 수업을 안가면 안 갔지 지각한 적은 없던 것 같다.”라고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김덕호 동문은 이 외에도 “동기들과 넓은 자취방을 옆집으로 2개 연어 가족처럼 서로의 반찬을 모아서 밥도 함께 차려 먹고 매일 같이 술을 먹었던 기억도 나고, 캠퍼스의 낭만을 느껴보려고 동기들과 대운동장 한 가운데에서 돛자리 펴고 소주를 먹었던 기억도 있다. 경비 선생님께서 쫓아오셔서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다.”라고 과거의 만행을 고백하며 “말하고 나니 조금 부끄럽긴 하다.”라고 추억을 회상했다.

당시에는 2학년이 되면 전공의 신입생으로서(당시에는 스포츠건강복지학부 레저스포츠전공으로 들어갔다.) 100여 명의 선배님들 앞에서 장기자랑과 신고식을 했었다고 한다. “합동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나

무 떨어져 동기들과 소주 반병씩 한꺼번에 마시고 하고 들어가서 기억도 안 나는 장기 자랑을 했던 기억도 난다.”라며 긴장한 새내기로서의 모습도 말해주었다.

김덕호 동문의 이야기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았다. “선배들에게 혼나고 강의실에서 나와 바로 강원도 속초로 갔던 동기들과의 여행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며 당시의 여행을 떠올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지할 정도의 이유로 혼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기분이 좋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술을 먹기보다는 여행을 가자!’고 해서 동기들 차량을 이용해 무작정 강원도로 출발했다. 다들 반항심과 힘이 극에 달했을 때라 충동적으로 갔던 여행이었는데, 거기서 동기들과 술을 먹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 졌다.” “그때 당시 혼났던 주요원인이 용모와 복장이었기 때문에 반항심을 표출하고자 몇몇 동기들이 여행 후에 삭발하고 학교에 갔다가 그날 더 혼났던 기억이 난다.”라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를 들려줬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낭만이 있나는 질문에 김덕호 동문은 자신이 학교를 다닐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말을 남겼다. 김 동문은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이게 낭만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 다만 대학생활하는 동안 함께 동기들과 여행을 한 번 가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시거나 각자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직장인이 되거나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시간을 내어 어디를 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라며 현재 대학생의 위치에 있는 학우들에게 조언 했다. 더불어 “당장 눈앞에 놓인 나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동아리, 대외활동, CC 등 활동들을 모두 해보셨으면 좋겠다. 또한 재학 동안 주변 선배배, 동기 학우들과 좋은 인연, 추억 만드셨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학업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가끔 추억에 남은만한 일탈도 해보았으면 한다.”라고 학업 외에 우리들이 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채영 학우(스포츠산업 22) “우리는 시험 전 날에 야구 보러 가”

시간이 흘러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낭만은 물론 모든 것이 단절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낭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현재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재개되었다. 그로부터 1년 남짓 대학생활을 한 22학번 학우는 어떨까? 우리들 근처에 있는 평범한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코로나 끝물에 대학에 들어왔음에도 기억에 남는게 있냐’는 질문에 “볼링도 자주 치러 다니고, 학교 끝나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한강도 가고, 학교 축제 때 동기들과 모여 학과 부스를 체험하고 연예인을 보면서 즐겼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중에도 최근에 종합운동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갔던 게 가장 많이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채영 학우는 최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기아 타이거즈와 엘지 트윈스의 경기를 보러 갔다. 그러나 이채영 학우는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다. 팬도 아닌 경기에 왜 보러간 걸까? 이채영 학우는 “다양한 지방에서 올라온 동기들이 많고 다들 응원하는 팀이 달랐다. 동기들이 응원하는 팀과 제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었겠지만 다른 지방으로 경기를 보러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답했다.

“야구를 보러간 날짜가 4월 28일 인데 그 다음날에 생활체육지도자 시험이 있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채영 학우

학교 중간고사 시험기간이랑도 겹치기도 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소 할 겸 야구장에 너무나도 놀러가고 싶은 시기였다.”, “뽀만 아니라 동기 중에 작년에 엘지에서 북돌이(야구장에서 응원가와 율동에 맞춰 북을 치며 흥을 돋우는 역할)로 일했던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지금 다른 곳에서 일 하기는 하는데, 구단이 너무 바빠 요청을 할 때 한 번씩 야구장에서 잠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다. 마침, 그 날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진 엘지와 기아 경기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도 기아 팬인 동기 2명과 함께 종합운동장에 갔다.”라고 동기들과 잠실야구장에 놀러가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생활체육지도사 필기시험이 그 다음날 있어 야구장에 교재를 들고 가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했다. 다행히도 평소애 해 둔 게 있어서 필기는 합격했다.”라고 말하며 놀면서 공부까지 행기는 이채영 학우는 필기 시험 전 날, 공부 아닌 야구장 방문을 택하면서 젊어서 할 수 있는 낭만을 행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남은 학교생활 동안 하고 싶은 것이 있나는 질문에는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항상 아쉽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통기타와 잔디밭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낭만이라는 걸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펴고 놀기에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캠퍼스가 좁아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대신 올림픽공원이 학교 옆에 붙어 있어서 아쉬운 점을 공원이 채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을이 오면 시간 맞는 동기들과 돛자리 들고 올림픽공원에 가보고 싶다. 맛있는 것도 먹고 된다면 맥주도 한잔하면서 동기들과 가을바람 맞으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른 학교처럼 멋지고 넓은 광장은 없어도 걸어서 바로 옆에 올림픽 공원이 있다는 것이 한국체대만의 또 다른 장점 아닐까?”라며 우리대학의 강점을 어필했다.

기자생각

원고를 쓰는 이 시점, 밖에서는 교내 축구대회 ‘라리가’로 학우들의 함성소리가 캠퍼스를 가득 메우고 있다. 4월호 기자석에 송현일 기자가 “우리가 대학교에서 얻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 쓴 글이 있다. 글에서 언급했듯 우리가 진정 대학에서 얻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얻어가는 것은 실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술 먹고 실수도 해보고, 하루 쫘은

자체 휴강을 하고 롯데월드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9호선을 타고 종합운동장으로 달려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응원을 부르는데도, 올림픽공원에서 러닝을 뛰거나, 체력단련실에서 공간인 사람들과 열심히 운동을 해도 좋다. 나중에 대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치열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들로 대학생활과 캠퍼스 라이프를 낭만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